

건축계소식

제1회 대한민국 경관대상 수상작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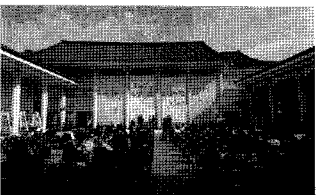


국토해양부는 올해부터 시행한 '제1회 대한민국 경관대상' 대상에 경기도 수원시의 <화성역사문화경관사업> 등을 포함한 총 14개 사업을 선정, 발표했다.

수상작은 지자체, 업체 등이 제출한 8건 사업을 대상으로 도시, 건축, 조경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경관대상」은 우수경관 사례를 발굴·홍보하고 지역의 경관향상 노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의 경관자원을 적극적으로 보존·관리·형성하여 건축물, 공공공간, 주변 환경 등이 종합적으로 잘 어우러져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우수한 경관을 조성한 사례를 대상으로 공모하였다.

2011 충남건축·공공디자인문화제



'2011 충남건축·공공디자인문화제'가 지난 11월 3일 개막을 시작으로 11월 6일(일)까지 논산 백제군사박물관에서 5,000여명이 관람한 가운데 성료 됐다.

이번 행사는 충청남도건축사회(회장 최종옥), 충남 공공디자인협회, 논산시가 주최하고 2011 충남건축·공공디자인문화제 추진위원회가 주관한 행사이다.

개막식에는 도민, 학생, 건축인 등 1,000여명과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 황명선 논산시장, 유병기 도의회 의장, 김종민 전북지사, 강성익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강석후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장, 서형달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석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문화·송덕빈 충청남도 의원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하여 개막을 축하했다.

이번 '2011 충남건축·공공디자인문화제'는 '공감'을 주제로 네 번째로 열렸으며, 주요 행사 내용으로는 전시부문으로 충남건축문화대전, 어린이집 그리기 및 만들기, 충청남도건축상, 충남공공디자인전, 충청남도 교육청 작품전, 충청남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 건축사작품전, 교수초대전, 찬조작품전 전시와 부대행사로 도유복 교수의 '글로벌 시대의 세계문화기행' 세미나와 상상마당, 명재고택, 돈암서원 답사를 내용으로 한 건축문화기행 등의 다양한 내용으로 치러졌다.

이번 2011 충남건축·공공디자인문화제를 통해서 도민, 학생, 건축인 등의 많은 참석자들로부터 큰 관심과 호응으로 건축문화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건축사회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이다.

2011 대한민국건축문화제



문화체육관광부와 (사)한국건축가협회가 주최하는 '2011 대한민국건축문화제'가 지난 11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목동 예술인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인류의 삶과 가장 밀접한 '집'을 주제로 하여 일반 전시 및 특별 전시, 각종 세미나 및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크게 일반 전시와 특별 기획전 등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일반 전시는 <대한민국공간문화대상 수상작 전시>, <올해의 건축 BEST 7(한국건축가협회상)>, <젊은 건축가전>, <특별 기획전

- 집>, <국제 교류전 '스페인 카탈루냐 건축'> 등이 전시됐다.

또한 건축 토론 문화의 트렌드를 제시하는 <건축토크쇼>, 도시 공간의 재발견을 위한 <건축투어> 등 다채로운 행사가 선보였다.

올해 대한민국 건축문화제는 모든 예술인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로 개막식 당일(11월 11일)에는 국악협회의 협조로 온 국민의 축제가 되리라는 염원을 담은 농악대의 길놀이와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에서부터 대한민국 건축의 현재를 살펴볼 수 있는 행사 장소인 예술인센터까지 이어져 눈길을 끌기도 했다.

auri 국가한옥센터 제2차 한옥정책포럼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국가한옥센터는 오는 11월 28일 오후 2시부터 서울역사박물관 1층 강당에서 auri 국가한옥센터 제2차 한옥정책포럼 '한옥 산업화와 신한옥의 미래'를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선 <한옥 산업화와 신한옥의 미래>, <한옥의 거주

성능, 얼마나 향상될 수 있는가?>, <한옥의 평면개발과 경제성>, <한옥의 산업화, 현주소와 향후 과제> 등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문의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031-478-9647

